

건강상식 제9장 보건의로 행정

保健 · 環境

(보건) (환경)

■ 權彝赫 (中央宗親會 名譽會長 · 醫學博士)

제15장 세계보건기구

3. 국제연맹보건기구

(지나호에 이어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국제보건사업은 중지되고 국제연맹보건기구의 활동은 역학 주보를 발간하고 정보요청에 답하는 데 그쳤고, 1942년에는 동부보건처(Eastern Health Bureau)도 기능이 중지되었다. 1943년 11월 44개국 참가하여 세계 최초의 국제 구제기간인 국제연합(United Nation, UN)을 창립하는 데 동의하였다.

영국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과 미국 루스벨트(Franklin D.Roosevelt) 대통령이 회동하여 1943년에 UN 구제기간(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UNRRA)의 창립을 제의함으로써 다시 국제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UNRRA는 전쟁이 끝난 후 관계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1946년 8월까지 UNRRA는 25개국 수억 인구를 지원해 세계사상 최대규모의 구제계획을 운영했다. 유럽 전역, 중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한국에서 특히 활발했다. 1946년 초까지 UNRRA는 20여 개국에 세계대전 중 연합군 군수품보다도 많은 양의 물자를 지원했는데, 식량, 의류, 의약품, 재봉기, 기관차, 열차, 어선 등이 그 내용물이었다. UNRRA는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처하고 난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였다. 1945년 6월에는 380명의 의사와 435명의 간호사 등으로 450개 팀을 구성하여 수백만 명의 난민을 위해 봉사했고, 특히 발진티푸스와 콜레라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UNRRA는 예상보다 빨리 1946년에 막을 내렸는데 냉전이 주요원인이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UNRRA는 WHO를 창립하는 데 결정적 초석이 되었다.

4. WHO 창립

1)국제연합회의 1945년 4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가 개최되었다. 1945년 6월 26일 'UN헌장'이 조인되고 그 해 10월 24일에 공식 출범하였다. 이 회의는 UN의 기초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쇠약해진 유럽 세력을 국제사업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참가한 50개국 중 소련 서쪽 유럽국에서는 9개국만이 참가했다. 이 회의를 주도한 4개국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었다. 중국 대표 시엔밍(Szeming Sze) 박사는 WHO를 설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 후 UN의 단일 보건기구 설치를 의결했으며 전문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전문준비위원회 국제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준비 위원회(Technical Preparatory Committee) 제1차 회의가 1946년 3월 18일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장차 설치될 기구의 조



직을 구성하는 일이었다. 위원 16인 중 시엔밍 박사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참석한 유일한 인물이었는데, 이 조직의 서문에 나타나는 '건강'의 정의를 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가 초한 원래의 정의는 "건강이란 신체적 양호함과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상태를 말하며 허약과 질병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Health is a state physical fitness and of mental and social well-being, not only the absence of infirmity and disease)"였다.

위원회는 새 조직의 명칭을 다른 기구와는 달리 UN이라는 말을 넣지 않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로 결정했으며, 회원국도 UN 가입국만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전문준비위원회 회의의 결의에 따라 3개월 후 6월 19일부터 7월 22일에 걸쳐 뉴욕에서 국제보건회의(International Health Conference)가 열려 PASB나 PAHO와 같은 기존 지역기구를 가능한 한 빨리 새기구의 지역사무처로 할 것을 9대 6으로 가결하였다.

1947년 제12차 범미주위생회의(Pan Americal Sanitary Conference, PASC) 통합안을 수용했고 1949년 3월 1일 작업에 들어갔다. 1949년 5월 24일 WHO 사무총장과 PASB 사무처장은 그 전년도에 열린 제1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와 범미주위생기구(Pan America Sanitary Organization)에서 결정된 바 있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는 1949년 7월 15일 발효했고 범미주위생위원회(Pan America Sanitary Council)와 PASB는 각각 WHO의 미주 지역위원회의 지역사무처로 되었다.

3)뉴욕 세계보건회의 1946년 6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국제보건회의(International Health Conference, 후에 World Health Conference로 됨)는 UN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는 WHO의 구성, 국제공중위생처(OIHP)의 기능을 WHO로 전환하는 문제, 세계보건총회를 위한 중간위원회(Interim Commission) 설치 문제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이 회의에는 51개 UN 회원국에서 대표와 13개 비회원국 옵서버가 참석하였다. 한국, 독일, 일본은 연합위원회(Allied Commission)를 통해서 옵서버를 파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정청 보건후생부장 이용설(李容濤) 박사과 연합군사령부 보건후생부장 샘스(Crawford F. Sams)대령이 참석하였다. 세계보건회의와 1948년 4월 7일에 설치된 중간위원회는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18개국으로 구성되었는데 서태평양지역에서는 호주와 중국만이 참가하였다. 중간위원회는 다섯 차례 개최되었는데, 최종 회의는 뉴욕에서, 나머지 네 차례는 제네바 국제연맹 건물에서 열렸다. (다음호에 계속)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수단 법원부동산경매

□ 月河 權赫伯 (좌윤공파36세, 한국부동산 경매학회 명예회장)

9.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해설)

(전호에 이어)

라. 대항력

(1)대항요건

이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언급했지만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주택은 주민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2)대항력의 효력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것은 제3자에 대항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즉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양수인(매매, 경매등으로 취득한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대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명도해주시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마. 우선 변제권

(1)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



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임차건물(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2)확정일자 부여기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확정일자를 부여해주는 기관은 등기소, 동사무소, 공증사무실 등이 있으나 상가건물은 임차건물의 소재지관할 세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바. 최우선 변제권

(1)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상가 건물의 경매시에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본법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소액임차인 보증금 및 일정액은 전호참조)

(2)최우선 변제의 한계

상가 건물가액(대지가액포함)에 대하여 일정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의 합계액이 경매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한도에서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소액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보증금의 일정액합계가 경매가액의 1/5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한다.

사.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상가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받은 명령을 말한다. (임차인 일방적 신청가능)

(다음호에 계속)

전화 : 010-2280-9267 권혁백

반도건설, 두바이 '유보라타워' 준공 권흥사 회장 간담회



"5년간 악몽의 터널을 지난 느낌입니다"

권흥사 씨(68, 의성 북아공파 36세, 본회 부회장, 반도건설 회장)가 지난 2월 9

일 머니투데이 전용윤기자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첫 중동 복합개발사업인 '유보라타워' 준공식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의 내용을 인용 보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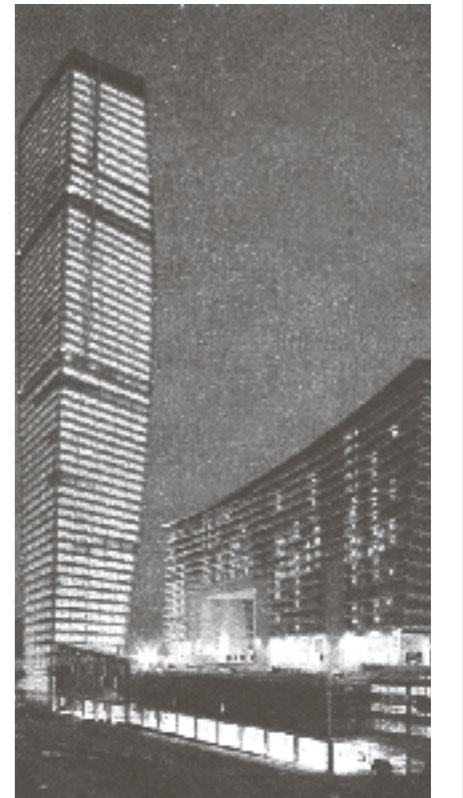
지상 57층짜리 업무용 빌딩과 1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225가구) 각 1개 동으로, 반도건설은 이 사업에 5100억여원을 투입했다.

63빌딩(249m)보다 높고, 연면적 22만 8519㎡의 복합소공공간은 삼성동 코엑스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도건설은 2006년 두바이 정부로부터 땅을 1000억원에 사들여 개발 계획을

세운 뒤 자금 조달 및 시공·분양을 모두 직접 했다. '유보라타워'는 평균 5.75도 기울기의 나선형 구조로 돼 있는데다 60개층 모두 면적이 다른 구조로 건설됐다. 가장 좁은 1층과 가장 넓은42층의 면적차이가 1105㎡에 달한다. 건축비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이 필요한 면적에 따라 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권흥사 회장은 "토지매입 뒤 되팔았다면 100억원대 차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름을 남길 만한 기념비적인 건물을 두바이에 남기고 싶었다"며 "결과적으로 '유보라타워'는 국내건설사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한 몫했다"고 자신했다.



남성불임 임상치료 선구자



권영훈 원장

■ 불임이란

결혼을 하고도 몇 년이 경과되었는데 임신이 안되었을때 또 3년,5년,10년 동안 임신소식이 없을 때를 불임이라 한다. 남성과 여성의 불임차이를 대충 살펴볼 때 여성불임이 60%,남성불임이 40%로 추정하고 있다.

■ 임신과정

생식기는 구조를 살펴보면 글자 그대로 생식기 즉, 생물을 살려나가기 위한 생식세포를 만드는 기관이다.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떨어져있는 기관을 통틀어 말한다. 사람의 생식기관에서는 정자 즉, 정소와 여자의 난소가 있다.

남자의 생식기관인 정소는 한방에서 말하는 천정(天精)이라 하여 하늘이 내려준 정자를 말하며 여성은 난소 즉, 천계(天葵)라 하여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14-15세가 되면 생리를 하게되어 배란과정을 거쳐 난자로 배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생식기관은 난소, 수란관, 자궁, 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난자를 만드는 난소와 난자를 자궁으로 보내는 수란관 정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질, 수정 된 난자를 발육시키기 위한 자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에 논한 생식 기능들이 건강한 작용을 할 때 특히 여성으로서 생리현상이 정예화 되어 충실한 난포에 의하여 배란이 배출된다. 남녀 모두 이러한 과정이 건설할 때 체임 즉, 임신 조건이 양호하여 착상이 되는 것이다.

남성의 생식기관은 정자를 만드는 정소와 만들어진 정자를 운반하는 수정관 요도 외에 정낭이나 전립선과 같이 특별한 분비액을 내는 샘. 그리고 고환, 음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방에서는 정액을 잘 만들어내지 못할 때 수송화강(水昇火降)이 되지 않으면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정액생성이 떨어져 전 임신까지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자연과 사람들 우리 (주)금송은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주)금 송 조 경 (주)금 송 환 경 권정섭나무한방병원

www.gumsong.co.kr 代表理事 / 院長 權正燮

서울사무소 TEL : 02)846-2922 안양사무소 TEL : 031)466-29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3-26(2층) H.P : 016-799-9455 FAX : 031)466-2923

-특히- ● 고사수목소재 제0527101호 ● 수목유보료 제0537094호 ● 수목유보료제조공법 제110-0582681호 ● 살충제 및 그 제조방법 제110-0582684호 ● 권정섭 나무한방병원 제41-0145323호

행복한 결혼을 찾아주는

하나 결혼 정보



소장 권경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삼제리제센타 A동 1706호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①번 출구)

- 상담전화 : (02)501-1177
○ FAX : (02)508-5285
○ H-P : 010-3203-3555
○ 자택 : (031)794-0980
○ E-mail : hm1003@hanmail.net

권문(權門)의 자녀 결혼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성심성의껏 우대하겠습니다.